

협회 소식



윤오수 상근부회장, 서울대 국가 정책 과정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주택협회 윤오수 상근부회장이 지난 8월 14일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원장: 최병선) 국가 정책 과정(64기) 수료식에서 최우수 논문상과 개근상을 수상했다. 윤오수 부회장이 발표한 '공공 개발 사업 추진의 갈등·분쟁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은 향후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거나 발생될지도 모를 분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거나 예방하고, 협상에 의한 해결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보고서다. 한편, 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국가 정책 과정(ACAD 과정)은 1972년 국내 최초의 고위 관리자 과정으로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고위 관리자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인사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폭넓은 식견과 인성을 지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회원사 소식

극동건설, 신임 사장에 안인식 씨 선임



웅진 그룹이 최근 인수한 극동건설 사장에 안인식(62) 전 현대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선임했다. 안인식 사장은 1945년생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기계공학 과를 졸업하고, 1978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뒤 리비아 줄리엔 담수 공장, 라스라누프 폴리에틸렌 공장 현장 소장 등을 지낸 해외 플랜트 사업 분야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외 플랜트 사업 본부장·자재 구매 실장을 역임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옮겨 부사장을 역임했다.

금호건설, 한국사회공헌대상 수상



금호건설(사장 이연구)이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후원하는 '2007 한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국민복지 지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06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어울림가 기증 운동과 한얼 캠페인, 소년·소녀 가장 돕기 활동 등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 노력의 결과이다.

대림산업, '2007 사랑의 집짓기' 운동 참여



대림산업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에서 2개동 8세대의 집을 짓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해비타트 운동에는 최수강 건축사업부 본부장을 비롯한 대림산업 임직원과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해 지붕 슬라브 합판 작업, 방수 시트지 부착 및 외벽 합판 기초 작업 등을 실시했다. 대림산업은 '5대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행복한 집을 지어주는 '행복 나눔 운동'을 대학생 자원 봉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동참 속에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2006년에는 해비타트 대구 지회의 칠곡 2개동(8세대), 서울 지회의 파주 환경 개선 사업에 동참했으며, 제주에서는 12세대 및 자원 봉사 센터 수리를 지원했다.

대림산업은 올해 제주 지역 20세대 집수리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행복 나눔 운동'을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대 지원하고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행복한 집을 지어주는 행복 나눔, 장애우와 자활 근로자들에게 소망의 성금과 물품을 나누는 소망 나눔, 문화 소외 계층과 문화 예술 교육과 문화 행사를 함께하는 문화 나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외 계층을 찾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나눔, 현장과 본사가 지역의 1산/1천/1거리를 가꾸는 맑음 나눔의 '5대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부영, 캄보디아 태권도 훈련 센터 기증



부영(회장 이종근)이 캄보디아에 태권도 훈련 센터를 기증한다. 부영은 지난 15일, 캄보디아에서 분속 캄보디아 교육청 소년 체육부 차관과 태권도 훈련 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미 캄보디아에 교육용 칠판 4만 개(300만 달러 상당)를 기부한 부영은 내년까지 750만 달러를 들여 캄보디아 전역에 300개 교의 초등학교를 지어줄 예정이다. 세계태권도연맹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4억 원을 지원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권도협회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부영은 이번 훈련 센터 건립에 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약정식에서 이종근 회장은 "이번 훈련 센터가 캄보디아의 태권도는 물론 낙후된 스포츠 발전에 촉매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친선 화합과 우호 관계 증진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옥외 폭로 시험장' 운영



삼성물산(사장 이상대)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옥외 폭로(暴露) 시험장을 운영한다.

이 시험장은 건축 자재를 폭염·폭한·폭서·폭풍·자외선·산성비 등 가혹한 기후 조건에 노출시켜 수명과 교체 주기를 과학적

으로 연구하고 검증하는 시설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1일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충남 서산에 200평 규모의 전용 폭로 시험장을 만들기로 했다. 회사 측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옥외 시험을 통해 건축물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성 주택사업본부 본부장은 "건축 자재의 수명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유지·보수하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시험장을 만들기로 했다. 레미안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조주택,

신임 총괄 사장에 현기준 씨 선임

영조주택은 신임 경영 총괄 사장에 반도건설 부사장 출신인 현기준(53) 씨를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현 신임 사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현대건설에 입사, 현대건설 구조조정본부 전무 등을 역임했다. 영조주택은 아울러 정원단 전 대우건설 상무를 사업 및 건설 부문 부사장으로, 배상조 삼성테크스코 이사를 유통사업본부장(부사장급)으로 각각 임명했다.



현대건설, '峨山 연수원' 개원



현대건설이 고(故) 정주영 명예 회장의 창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 회장의 호를 딴 연수원을 개원했다.

현대건설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현대 서산 농장에 임직원 연수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53실의

숙소와 식당으로 구성된 이 연수원은 정 회장의 호를 따 '아산 연수원'으로 명명했다. 이 연수원은 기존 영빈관과 함께 임직원 교육 연구 시설 및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직원 가족들의 휴양소로도 쓰일 예정이다. 이날 연수원 개원식에는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등 3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수 사장은 개원식에서 "창립 60주년을 맞아 고 정주영 명예 회장의 창립 정신이 살아 숨쉬는 서산 농장에서 임

직원 연수원을 개원하게 돼 기쁘다"면서 "최신 시설의 연수원 개원으로 부서 워크숍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휴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갖춰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진, 새 CI 선보여



현진그룹(회장 전상표)이 분당 '에버빌타워'로 사옥을 이전한 데 이어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새로운 CI(기업 이미지)를 선보였다.

현진의 새 CI는 세련된 로고 타입과 성장하는 듯한 모티브가 조합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역동적으로 혁신하는 현진의 기업 이념을 표현했다. 끝이 부드럽게 둥글려진 로고 타입으로 항상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현진의 가치를 전달한다. 로고 타입의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기업, 존경받는 선진 문화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모티브의 강렬하고 밝은 레드로 글로벌 리딩 기업의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을 담아냈다. 현진의 흥용기 상무는 "이번 CI 교체 작업은 분당 신사옥 이전과 함께 해외 사업 및 리조트 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에 따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현진 그룹 임직원들의 변화와 혁신 의지, 미래에 대한 당찬 도전 정신을 한데 모은 것"이라고 그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SK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 가져



SK건설이 7월 31일, SK순화빌딩 사옥 5층 교육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손관호 부회장과 유웅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경발협 대표, 여울회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해 창립 30주년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장기근속자와 '우수 프로젝트', '품질 우수', '무재해' 등의 분야에 대한 SUPEX 포상이 이뤄졌다. 우수 프로젝트로는 지난해 준공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원가 절감, 품질, 무재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정했고, 품질 우수 프로젝트는 전 기간 평균 평가 등급 A 이상이고, B등급 미만이 없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무재해 포상은 지난해 안전 관리 활동 우수 프로젝트(무재해 365 Gold, Silver, Bronze, 무재해 준공) 및 개인(안전 지킴이, Safety Leader, Safety Champion, Safety King)에 대해 시상했다.